LG생명과학, 한국인 암 유전자 발굴

위암 · 간암 · 췌장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128종 유전자 분리

LG생명과학은 한국인의 위암 간암 췌장암 발현 유전자를 발굴해 13종의 다발성 인체암을 포함한 암 관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11월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한국인의 암 발생 가능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감지해 각종 암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LG생명과학은 미국의 연구개발 현지법인인 LG BMI, 전략적 제휴기업인 진로직과 함께 2001년부터 한국인 위암 간암 췌장암 환자의 조직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를 DNA 칩으로 분석한 결과, 암환자의 DNA와 정상인의 DNA를 비교해 암환자에게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128종의 유전자를 분리했다.

또 기존에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이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로서 한국인의 암 발생 및 진행과 관련된 12종의 신규 유전자도 발굴해 9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LG BMI는 앞으로 암의 발생 원인과 진행과정 등을 더욱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발굴한 유전자들을 암으로 조기 진단하는 DNA칩을 개발하거나 한국인에 적합한 암 관련 진단시약 및 항암제 신약 개발을 위한 원천소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03>